

그림과 액자, 그들의 위험한 관계

〈송은영 개인전-따라잡기/끼어들기전〉



아트뉴스 갤러리 | 3월11일까지 | 02-326-2326

그녀는 자신만을 쫓아다녔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거울 위에 거칠고 속도감 있게 따라잡는다. 아트뉴스에서 열리는 송은영의 전시에서는 거울과 액자를 매개체로 한 일종의 '설치회화'를 볼 수 있다. 서양의 회화사에서 액자는 회화를 둘러싼 틀을 넘어 회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오브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오죽하면, 그림보다 액자가 더 좋다는 말이 생겼겠는가. 송은영의 〈따라잡기/끼어들기전〉은 회화를 구성하는 축인 화면과 틀의 경계 사이를 넘나드는 작품을 선보인다.

금빛 액자와 흑백의 시각 화면으로 구성된 작품은 〈끼어들기〉 시리즈이며, 거울이나 은판지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것은 〈따라잡기〉 시리즈로 명명했다. 나를 잡으려는 행위는 피그말리온과 나르시스의 신화를 연상케 했다. 작가는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자신의 실체가 덧없는 허상임을 확인하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녀의 '따라잡기'는 심하게 왜곡된 신체를 드러내며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서 일종의 시공간의 흔적으로 남겨진다. 그리고 남겨진 흔적들은 전시장이라는 새로운 시공간에 맞닿는다. 이렇게 엇갈리게 맞물린 시간과 공간의 간극은 새로운 이미지를 받아들이면서 한번 더 그녀의 주변을 '따라잡기'한다. 그녀의 이러한 행위 이미 알고 있지만 감히 시도해보지 못한 보여지는 나를 잡아보려는 는 거울 위의 흔적이 오로지 작가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다. 그녀의 불확실하고 모호한 실체는 또한 우리 모두의 실체이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인 〈끼어들기〉는 그녀의 공간적 탐구와 자화상 사진을 병치시킨 작업이다. 그녀의 얼굴 파편들- 눈, 코, 입 등-은 공간 위에 설치된 비어 있는 액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거나 혹은 액자에서 빠져나오려는 것처럼 보인다. 일그러진 표정의 얼굴파편들은 차가운 거울의 표면과 달리 뜨겁게 달구어진 듯 보였다. 무엇을 위해 저처럼 힘들게 액자 속으로 들어가려는 걸까? 그림이 뭔데!

〈따라잡기/끼어들기전〉은 시각적 환경과 공간의 조형적 실험이 돋보이는 전시다. 그리고 회화에서 나타나는 화면과 액자의 관계에 대한 역설이 생동감을 심어준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끊임없이 '나'를 찾는 존재의 실체에 대한 진지한 의문이 되돌아올 것만 같다.

정현/조형예술가